

전남도립미술관, 지역과 세계예술 아우르는 전시 열린다



전남수목비엔날레 연계 국제전
美 현대미술 래리 피트먼 초대전
프랑스 케브랑리 박물관 특별전



도립미술관은 올해 수목 현대성을 조명하는 전시를 비롯해 국제전, 지역 출신 작가전 등 다양한 전시를 연다. 왼쪽부터 래리 피트먼 작 'Cities with Egg Monuments Luminous'와 강중열 작 'Camellia'.

남도 수목화의 현대적 정신성을 탐구하는 국제전, 국제수목비엔날레와 연계한 국제전 'BLACK', 지역미술을 집중 조명하는 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전남도립미술관(관장 이지호)은 올해 지역민과 동시대 예술을 연결하는 허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전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또한 예술을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비롯해 워크숍과 강연, 전시 연계 활동 등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예술적 담론과 창작 활동 촉진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다각도로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올해는 학술연구용역 '녹우당'과 '운림산방'에서 수집된 아카이브 자료를 매개로남도 수목화의 현대적 정신성을 탐구하는 국제전시를 연다. 2025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와 연계한 국제전 'BLACK' (가칭)은 소치 허련을 비롯한 대표적 남

종화 작가와 프랑스의 피에르 솔라즈 등 동서양의 예술가 2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김민경 학예팀장은 "이 전시는 동서양 작가들의 상이한 미술 접근 방식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라며 "색채와 형식을 초월한 예술의 본질을 탐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역미술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전시도 펼쳐진다. 여수 출신 '강중열 초대전', 장흥 출신 '김선두 초대전'은 두 작가의 오랜 화업과 예술적 여정을 재조명하는 자리다.

현대미술의 담론을 공유하고 확산하는 전시는 올해도 관객들을 만난다. 인간의 존엄성을 모티브로 한 '우리의 아픔들'전(가칭)을 통해 공동체 불평등이 낳은 고통과 그림자를 들여다보며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사유해보자는 취지다.

미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 '래리 피트먼 초대전'은 팬데믹 이후 인류의 불안과 회복의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시간이다. 피트먼은 강렬한 색채, 복잡한 구성이 특징이며 오늘날의 문제를 다층적으로 접근해 현대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국립중앙박물관 교류 협력전시인 프랑스 케브랑리 박물관 특별전 '오세아니아-대양의 예

술'도 열린다. 18-20세기 태평양 지역 조각과 공예를 포함한 문화유산 170여 점이 선보일 예정이다.

국립현대미술관 협력사업인 '2025 필름 앤 비디오'의 '창작의 순간-예술가의 작업실'도 관객을 맞는다. 피카소와 안젤름 키퍼 등 세계적인 거장들의 창작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는 예술의 본질과 작업의 깊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소장품을 활용한 기획전, 기증전용관 전시도 추진된다. 또한 5월 '어린이날 행사', 10월 '어린이 미술 페스티벌' 등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과 주말 교육 프로그램을 보다 세분화하고 지난해 시작한 성인 대상 교육 아카데미도 정례화해 폭넓은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접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지호 관장은 "올해는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가 열리는 해인 만큼 역량을 발휘해 지역 미술의 유산을 계승하고 현재와 미래를 선도하는 예술적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진행해 지역을 대표하는 국립미술관으로서의 지위를 더욱 확고히 다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면접교섭' 현실과 한계 영화로 말하다



'면접 교섭' 스틸컷

10일 광주독립영화관서 GV

"사랑하는 내 아이가 늘 밝고 건강하게." 광주독립영화관(관장 한재섭·독립영화관)이 영화 '면접교섭' GV(관객과의 만남)를 오는 10일 오후 7시 독립영화관에서 연다. 작품을 연출한 이주아 감독이 참여해 영화에 대한 생각을 들려줄 예정이다. '아근 대신 뜨개질'을 제작한 이현식 피디가 진행자로 함께 한다.

영화는 각기 다른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된 두 아버지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다뤘다. 두 주인공은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면접교섭권'을 쉽게 행사하지 못한다.

면접교섭권은 비양육 부모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인 동시에 자녀가 부모와 함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같은 권리가 행사되고 존중받지 못하는 이

유를 초점화한다. 작품은 면접교섭권의 한계에 대해서도 다룬다. 자신의 귀책을 배우자에게 뒤집어씌우면서 "자녀가 면접 교섭을 원치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는 부모, 무언의 압박을 가하는 양육자 등도 다룬다. 주역 배우들은 예고편 속에서 "아이가 잘 크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 밖에 없다"면서 "아이 스스로 만나기 싫다는 말을 하계끔 만들어서 보내는 경우도 있다"고 입을 모았다. 독립영화관 한재섭 관장은 "초등학교 3학년 딸과 떨어져 지내는 아버지가 면접 교섭권을 행사하면서 마주한 현실적 어려움을 그린 영화"라며 "GV를 통해 한 국가사회에 존재하는 '면접교섭권'에 대한 문제점과 이슈를 함께 이야기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고 했다. 무료 관람, 구글 폼 신청. /최원민 기자 rubi@kwangju.co.kr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문화담론지 '창' 겨울호

우리는 주체적 문화인...쉽 모티브 '문화해먹'

우리는 얼마나 주체적인 문화인일까? 수동적 문화 수용이 아닌 주체적 문화 수용은 21세기 문화시민으로서 견지해야 할 부분이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하 재단)이 발행하는 문화담론지 '창' 겨울호(통권 65호)가 나왔다.

이번 호 특집기획은 '우주인(우리는 주체적 문화인)', '달빛 여행 떠나는 컨설턴트'를 비롯해 '민중의 시인이 된 경찰관', '결혼이민자 정착을 돕는 사장님', '마을 만드는 자영업자' 등 다양한 직업 가진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문화 이야기로 꾸며졌다.

'문화해먹'은 여행과 쉽 모티브로 한 이야기를 소개한다. 이현식 멘토스쿨 원장은 '바위가 멈추는 곳'을 통해 제주도 자전거길 풍경을 풀어내며 송재환 연구위원은 '느린 걸음, 쉽이 있는 곳'에서 광주 동구인문학당을 토대로 여유와 사색의 의미를 이야기한다.

'동네뽕네'와 '맛의역사'에서는 양림역사문화마



을, 송정떡갈비의 내력 등을 맛깔스럽게 소개한다. '법정알오빠'에서는 김민표 변호사가 '상속과 유언'을 토대로 실생활에 필요한 법률 상담을 지면에 실는다. 이지호 사무국장은 "재단 창립 20주년을 앞두고 발간한 이번 호는 시민을 중심으로 한 문화 담론을 담아내는 데 초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창'은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한 담론 등을 다채롭게 담아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창'은 재단 후원회원이 되면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누리집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극작가 박조열의 삶과 문학... '오장군의 발톱' 전

ACC, 11일~3월 23일
공연계 상황·소장 기록물 전시

극작가 '박조열'(1930-2016)은 이색적인 이력의 문인이다. 흥남 철수 작전 때 월남해 13년 간 군인으로 복무하고 예편 이후에는 극작가로 활동한 것. 1974년에 발표한 '오장군의 발톱'(1974년)은 대표작으로 6·25전쟁과 남북이산가족을 모티브로 한 희곡이다.

박 작가는 지난 2015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오장군의 발톱'과 '토끼와 포수' 등 희곡 초고 기록물을 기증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 ACC)은 11일 '박조열과 오장군의 발톱' 전을 아시아문화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연다.

오는 3월 2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다양한 저술과 다수의 공연 기록물로 이루어져 있다. 1960-1970년대 공연계의 상황과 박조열의 활동을 소장 기록물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특히 대표작 '오장군의 발톱(1974년)'에는 6·25전쟁과 맞물린 개인사적 아픔이 투영돼 있다. 반공 이념이 강조된 시기에 쓰여진 이 작품은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됐다.

집필 이듬해 1975년 극단 자유극장의 초연을 며칠 앞두고 검열기구의 '공연 불가 판정'을



1988 극단 미추 '오장군의 발톱' 공연 장면.

받았으며, 14년이 지난 1988년에야 '오장군의 발톱'은 극단 미추에 의해 초연되는 곡절을 겪었다. 백상예술대상에서 대상, 작품상, 연출상, 희곡상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박 작가는 '연극 대본 사전 규제'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며 '표현의 자유' 운동을 주도해 연극계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전시는 국립극단과 아르코예술기록원 등 공연문화예술아카이브 네트워크 협의체 협력을 통해 진행된다. 아르코예술기록원은 이번 전시를 위해 '오장군의 발톱' 심의 대본과 구술 기

록물을 제공했으며, 국립극단은 '오장군의 발톱' 남독회 공연을 전시 개막일인 11일 ACC 극장3에서 선보인다.

한편 이강현 전당장은 "이번 '박조열' 전시는 소장 아카이브 외에도 외부 기관의 협조로 이뤄지게 돼 무엇보다 의미가 있다"며 "전시와 남독 공연을 통해 박조열 작가의 삶과 시대적 배경, 대표작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남독 예매는 ACC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ARKO 한국창작음악제' 관현악 창작곡 축제 펼쳐진다

18일 국립국악관현악단
2월20일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서양 고전음악이 주를 이루던 국내 음악시장에 '한국 관현악 창작곡'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축제가 열린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와 한국창작음악제추진위원회가 'ARKO 한국창작음악제(이하 아창제)'를 오는 18일(국립극장 해오름극장), 2월 20일(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각각 펼친다. 블라인드 심사를 통해 선정된 국악·양악 각각 초연곡 3곡, 재연 2곡을 연주할 예정이다.

공연은 18일 국악 부문은 국립국악관현악단(지휘 김성국)이 출연, 김신애 작 '컬리버 여행기 서곡'과 김상진 '정약대금'으로 시작한다. 유희이 협연하는 '창공의 소리', 최지혜 첼로 협주곡 '미소' 등이 울려 퍼진다.

이정호 국악관현악 '아부레이스나', 최윤숙의 25현 가야금과 국악관현악을 위한 '도룡이를 쓴 그스네'도 관객을 만난다.

2월 20일 양악 부문은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지휘 정치용)가 막을 올린다.



지난해 ARKO 한국창작음악제 공연 장면.

(아창제 사무국 제공)

김신의 오케스트라를 위한 'LOGBOOK1', 박다은의 '물의 노래'를 비롯해 임영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이강규 'NIGHT RETURNS', 전예은 '장난감 교향곡' 등이 레퍼토리에 있다.

2007년부터 시작해 올해 16회를 맞이한 아창제는 매년 국악·양악 부문 관현악 작품을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현재까지 124명 작곡가가 171개 작품을 발표했으며 지난해에는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with 아창제' 특별 연주회를

진행한 바 있다. 아창제 사무국은 '창의성을 꽃피우는 다양한 '창작 관현악곡'으로 채워지는 이번 아창제는, 국내외 활발히 활동하는 다양한 연령대 작곡가들을 만나볼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며 "국내외 창작음악계에 호기심이 있다면 공연장을 찾아 보셔도 좋을 듯하다"고 했다. R석 3만 원, A석 1만 원. 예술의전당 예매. /최원민 기자 rubi@kwangju.co.kr